

지역 매 아리

부안마실축제 현장보고회 개최

부안군과 부안마실축제제위원회(위원장 이석기) 최근 매창공원 일원에서 제7회 부안마실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7회 부안마실축제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먹거리, 부안민의 색깔이 있는 특산물들을 바탕으로 정과 인심, 이야기와 추억을 함께 나누는 축제이다.

한편, 부안마실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마실축제 홈페이지(www.buanmasil.com)를 참고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고창군과 고창군공무원 노동조합이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단체협약 체결식은 지난 15일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안남규 노조위원장 등 노사 양측 본교섭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노사대표 인사말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2008년 고창군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래 13번째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18년 11월 단체교섭 요구안이 접수됐다.

쟁점교섭 요구안 12건 중 원안수용이 5건, 수정수용이 5건, 수용불가 2건이다. 주요협약 사항으로는 ▲직급별(6,7급) 맞춤형교육과정 개설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및 배우자 포상연수 실시 ▲축제 및 행사시 직원 자율참여 보장 ▲노동절(5·1)특별휴가 실시 ▲신규공무원 해외연수 참여기회 확대 ▲악성민원대응 실행방안 마련 등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완전히 새로운 고창,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사가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 안남규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민과 공감하며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녀노소 즐기는 '스포츠 고창'

올 4월까지 500여명의 전지훈련단 고창 찾아 수익원대의 경제효과 창출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상급의 체육시설을 갖춘 고창군이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신설조각인 스포츠마케팅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규모의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단, 배드민턴 끝나무 국가대표팀, 전남·북 럭비대표팀, 볼스데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등 4월 현재까지 총 500여명의 선수단이 고창을 찾아 120일간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공인된 수준급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도 잇따르고 있다. 오는 6월 600명이 참가하는 OB 축구대회와 하반기 전국우수대학 초청 축구대회, 1700여명이 참가하는 문체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 등 굵직한 전국 대회가 연속해 예정돼 있다.



고창 스포츠터온.

특히 고창군은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 체육인부터 지역 상인까지 전지훈련 선수단과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는데 함께하고 있다.

고창을 알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레포츠타운 조성 등 4계절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 남녀노소 언제든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총력'

정읍시가 최근 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책자를 양돈 농가에게 제작 배부했다. 또 농가에게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는 서한문도 함께 발송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하면 양돈 농가에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사람에게도 전염되지 않고 돼지에게만 전염되며 치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돈 농가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축산 농가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사례회의 통한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에서는 각 기능별 피해자 보호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범죄피해자 발굴에서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 한건의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 세심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사례회의를 가졌다.

이번 사례회의는 여러 종류의 범죄 피해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 폭력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인식과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일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키운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발생 시 각 기능별 피해상황 확인 및 분리, 긴급응급입원조치, 심리적·경제적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하는 취지에서 실시하였다.

박원성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들의 관심이 가해자의 행동을 제어해 주는 효과가 있다"며 "피해자가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환 서장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는 기본업무인 만큼 세심한 관심으로 범죄피해자가 두 번 울지 않도록 담당자들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유진섭 정읍시장, 부부동반 세월호 영화 '생일' 관람

유진섭 시장이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저녁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시 간부 공무원과 정읍시의회 의원 부부들과 함께 시내 한 극장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의 일상을 담은 영화 '생일'을 관람했다.

유 시장은 관람을 마친 후 "고 2, 초 6 두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치단체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정읍을,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화 <생일>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 '수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수호를 애도하며 살아가는 '순남'의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 시장은 이종언, 엄미인 순남역(役)은 전도연, 이빠 정일역(役)은 설경구, 동생 예술역(役)은 김보민이 맡았다.

/정읍=김대환기자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 실현

유진섭 정읍시장, 세창스틸 공장 방문... 기업체와 소통행정 강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유진섭 정읍시장이 연일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기업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시장은 16일 정읍시 하북동 2산업단지 내 (주)세창스틸 생산공장을 방문해 기업체 현황을 둘러보고 업체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 시장의 연이은 기업체 현장 방문에서 민선 7기 핵심 시정 방침인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유 시장은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성장과 수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지역경제도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선도적 기업에, 2017년에는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국내 최고의 자동차용 강관 제조업체다.

세계 인증상품을 수여한 (주)세창스틸은 전문 자동차 부품 소재 공급업체로서 인발강관과 무게목강관 양산 설비를 구축했다.

특히 '차량 동축 조인트 케이지용 강관'은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주행 중에 구동축 회전과 토크의 마찰 저항성에 견딜 수 있는 내마모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고품질의 치수 정밀도를 갖는 무게목 강관(Seamless Steel Pipe) 소재가 적용되는 제품이다.

이재선 대표이사는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합리적 가격과 최고의 품질로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